

## 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호주 정부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호주가 막은 건 '화면'이 아니라 '계정'인데, 16세 미만이 특정 SNS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단속하는 대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떠올려보면, 호주의 결정을 극단적인 정책으로 넘기기 어렵다. 한국의 청소년 또한 SNS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

## SNS, 안전한 진입로가 필요하다

나라 10대 이하 이용자는 유튜브를 하루 평균 98분, 인스타그램을 49분 사용한다. 둘을 합치면 하루 2시간30분에 가까운 시간이다. 학원 이동과 쉬는 시간, 잠들기 전의 짧은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 SNS가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단순한 사용 시간이 아니라, 계정이 열어젖히는 기능들이다. 로그인과 동시에 자극적인 알고리즘 추천이 불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비교의 기준이 되며, 댓글 한 줄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감정·관계에 있어서 덜 단단한 시기에 너무 큰 무대가 먼저 깔린 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 고등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NS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온라인 괴롭힘 경험과 지속적인 슬픔·절망감, 일부 자살 위

험 지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더 커졌다.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무겁다. 영국에서는 10대 소녀 사망률을 다른 조사에서 우울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결론에 명시되며, 플랫폼과 사회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는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 두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계정 지연'은 통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다. 운전면허가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듯, SNS도 최소 연령선을 세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진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대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워 기본값을 더 조심스럽게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라면 사회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사실 호주의 이번 정책은 찬반이 뜨겁다. 청소년이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관계·표현의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호주가 먼저 길을 열어 준 만큼, 한국은 시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향은 단순하다. 16세 이전에는 계정 생성을 늦추고, 계정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는 청소년 계정을 '보수적 기본값'으로 시작하게 하자. 공개 범위, DM, 추천 피드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커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학교는 단속 대신 온라인 관계의 규칙을 가르치고, 가정은 잠들기 전 한 시간만이라도 화면 밖 루틴을 함께 만들면 된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금지가 아니라, 위험을 낮춘 진입로다.

## 열린마당

##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보다



허 숙 자  
도민감사관

행정은 제도와 규정으로 운영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제주도는 외부전문가인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도민감사관은 행정을 감시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도민의 삶을 행정에 전달하는 소통의 청구다. 청렴한 제주,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선거 몸풀기… 잇딴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 후보들 지지층 결집 주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리에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

문대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오는 25일 제주시 한라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설날(2월 17일) 전후로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음 달 7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직 도지사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도정 성과와 정책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

## 공사장 위험요인 사전 차단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은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별도로 실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민간전문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며 "점검반은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시공·품질관리, 위험물·건설장비 관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 감사의 말씀

이번 원주변씨 효진(향년 45세, 부산 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장)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나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2일

남 편 임성준

## 채권신고 공고(제2차)

제단법인 덕산문화재단은 2025년 12월 3일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해산 허가에 의하여 해산하였기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재단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 및 내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신고기간: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2. 신고장소: 제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사무실 (제주시 이조로 1252, 301호)
3. 신고방법: 우편(등기권장) 또는 방문접수
4. 유의사항: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있는 채권은 청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청산인 김동연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 개발

☎ 782-3644  
010-4690-3636

##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신지 선흘2리 용암동길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 묘지후손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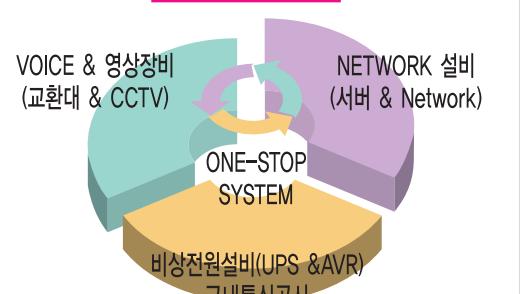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발이내 가능합니다.”

- ◆ 자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토박이)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9번지  
전화 : (064)722-0992, FAX : (064)725-0993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명서(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나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2일

배우자	양정자	며느리	부향순
아들	문원일	차명숙	이준서
원희		강영숙	김영미
원택		임선영	양용수
원형			
원철			
원우			
딸	문원비	사위	

##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撇,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신박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로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 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 사설

##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벌 규정 시급

4·3 왜곡 논란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돼 철거된다. 해당 광고물은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주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이를 가로막기 위해 게시돼 논란을 일으킨 4·3 왜곡 현수막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주도비 주변에 설치된 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협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문심의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철거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바꾸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여기서 멈춰선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내 택배사와 의료기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검진비 지원과 맞춤형 검진 항목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차이가 크다. 과로와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 그동안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한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건강검진 지원 역시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해 이어지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취지만 좋은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노동 구조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불규